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옴비의 오월통신	25 덕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중계방송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 킨 50 지구촌 뉴스	30 리얼스토리 논	00 중계방송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25 영상앨범 산(재) 55 바른길 고운말	1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00 KBS 뉴스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45 덕터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생생정보 스페셜	10 우리기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00 신년기획,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을 꿈꾸다 55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엄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5 남도 스페셜(재) 55 튼튼생활채조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우리기 탐구생활 스페셜(재)
4 20 패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우치원 공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편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검정고무신4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강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덕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10 TV 주치의 덕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처녀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 <단팹>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kbc 창사 2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순천만 흑두루미의 비상>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 특별기획 (화장)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인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주년 (안연수, 두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2부)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40 모쿠드라마(싸인)(재)	20 해외걸작드라마(삼총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24 45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칸의 여왕”은 배우 길 함께 가는 수식어

전도연, 영화 ‘무뢰한’으로 4번째 칸 방문

16일(현지시간) 오후 남부 프랑스 지중해의 바닷바람이 그대로 불어오는 칸 국제영화제 한국관 테라스에서 배우 전도연(사진)이 하얀 소파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칸 해변을 배경으로 삼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할 때도,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도 그의 몸짓과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배우로서 평생 한 번 가기가 어렵다는 칸 영화제는 전도연에게 이번이 벌써 4번째다.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2010년 ‘하녀’로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공식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한동안 부담스러웠던 ‘칸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이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배우의 길을 함께 가는 수식어로 받아들였다. 그 큰 마음으로 매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칸을 찾는다.

“한때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러웠고, 극복하고 싶었어요. 다른 작품으로 그 위에 서고 싶은 생각이 강했죠. 이제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떨쳐내려 했을까 싶어요. 칸에 오면 내가 어떤 배우이고,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묻게 돼요. 그러니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수식어, 나와 같이 가는 수식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그의 손에 칸행 티켓을 쥐여준 영화 ‘무뢰한’은 형사 살인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지만, 그 과정에 빠뜨리는 형사와 살인자 여자의 사랑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영화가 누아르 장르 영화보다는 멜로 영화로서 자리를 매긴 것은 배우 전도연이 김혜경이라는 책장 속 여자를 입체적으로 그립어낸 영향이 크다.

“꽃병 속의 꽃 같은 인물이라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김혜경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김혜경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저한테 혜경이를 많이 맡겨줬는데, 만약 내가 혜경을 놓치면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노력했어요.”

전도연은 김혜경을 남자의 시선으로 대상화되지 않은 여자 로 표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희생자 또는 구원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전형에 가뒀 두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다.

“감독님은 여자에 대한 죄의식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랑 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더 상처받게 되는 거잖아요. 김혜경이 그 남자들보다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더 적극적이기에 희생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혜경도 재혼에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그 남자들을 더 넓게 품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 전도연은 ‘밀양’에서의 연기에 필적하는 연기를 펼친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뛰어들지 말지 애슬슬하게 오가는 장면마다 그는 모순된 감정을 온몸으로 미묘하게 드러낸다.

그는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됐듯이, ‘밀양’의 연기가 자신에게 최고의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을 받았으니 정점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밀양’의 연기가 제 최고의 연기라고는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저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계속 좋은 작품에서 연기가 묻어나는 배우가 되려고 하죠.”

영화제에서 연기를 인정받음으로써 배우로서 그의 입지는 탄탄해졌지만, 이후에도 영화제 초청을 염두에 둔 작품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된다고 했다. 동시에 흥행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않는다.

실제로 ‘밀양’ 수상 직후 그가 처음 선택한 영화는 ‘거장의 작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랑을 그린 작은 영화 ‘멋진 하루’였고 이후에 출연한 영화 중에서도 임상수 감독의 ‘하녀’를 제외하면 ‘영화제용 영화’라고 딱 집어 말할 만한 작품은 없다.

“무뢰한” 역시 전도연이 출연한다는 점 외에는 칸 영화제 초청 소식이 의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다.

“일단 여배우에게 시나리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영화제용 영화를 고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영화가 어느 정도(흥행)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까지 작품에 대한 애정이나 자신감이 크죠.”

동양 스타들의 해외 진출이 흔해진 시대다. 전도연은 외국에서 구체적인 출연 섭외는 아니더라도 같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외국어 연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고 했다.

“외국의 좋은 감독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영어를 배워서 연기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극복하는 일이 우선일 것 같아요.”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크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대기여행 (히말라야 전설의 왕국, 부탄)
07:15 곤(재)	11:20 세계대기여행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내 마음의 울릉도)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이즈 (위대한 미안함)
08:00 똥덩이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2:45 달리자여우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23:35 세계 전문포 아틀라스 (페루 문명기행)
08:3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40 줄기꾼 수학 EBS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꼬마 철학자 유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콘서트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이하니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 1-일제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 1-일제개념>(재)	07:00 2015 공민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 4-1>
00:50 " <고급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급 Basic Grammar-junior>	07:3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1>
01:40 " <문학-일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B형>	08:30 약학-의학-치의학 입문자격시험	16:50 " <국어 6-1>
02:30 " <미적분1>	14:50 올림포스 <문학-일제개념>(재)	09:00 출제문 수학 EBS MATH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3:20 " <수학 1>	15:40 " <미적분2>(재)	09:10 TV 중학 <국어1>(2)	18:00 TV 중학 <국어5(6)>
04:10 " <미적분1>	16:30 " <수학 1>(재)	09:50 " <수학(상)>	18:40 " <수학 3(상)>
05:00 뉴탐스런 <물리 1>	17:20 " <미적분2>(재)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6:00 " <생명과학 1>	18:10 뉴탐스런 <물리 1>(재)	11:10 " <국어3(4)>	20:00 EBS 기획특강
06:50 " <동아시아사>	19:10 " <생명과학 1>(재)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리포트
07:40 "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2:30 실천 취업 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인터넷 수능	13:00 데일리 시술형 수학3	22:00 등업신공 <과학 2(상)>
09:20 " <심주석의 수학 1>	<화법과 작문>특독서와 문법A형	13:10 등업신공 <수학 1(상)>	22:40 " <수학 3(상)>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1:50 " <문학A형>(재)	13:50 " <과학1(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
11:00 " <수학 1>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4:30 " <수학2(상)>	24:00 왕기초 중학 <수학1>
11:50 배움플러스	23:10 인터넷수능 <영어특해연습-종합>	15:20 만점왕 <국어 3-1>	24:30 백점공략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음 4월 1일 甲午)	
子	48년생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 60년생 불필요한 것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다. 72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84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행운의 숫자 : 48, 09	午	42년생 무리한다면 공든 탑도 무너질 것이라. 54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66년생 뒷감당 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78년생 뒤돌아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8, 96
丑	49년생 노출 시켜서 좋을 일은 전혀 없다. 61년생 숫대를 갖지 않으면 의외의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 73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5년생 다들어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날이라. 행운의 숫자 : 84, 79	未	43년생 자신의 실력부터 키우고 불 일이다. 55년생 규모에 대소와 상관없이 중직대한 일이다. 67년생 집중한다면 분명히 성취하게 되어 있느니라. 79년생 상호 연결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60, 42
寅	38년생 한계를 정해 두자. 50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라. 62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라. 74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86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 행운의 숫자 : 30, 85	申	44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56년생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이해 할 수 있으리라. 68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80년생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5, 47
卯	3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51년생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63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75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좋은 길로 이르리라. 87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다. 행운의 숫자 : 22, 31	酉	45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망설이 생가지 않도록 주의 하자. 57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69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것을 태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7, 70
辰	40년생 참으로 애석하지 그치지않았다. 52년생 명분은 무의미하니 실수를 차려야 할 때이니라. 64년생 의무를 다 하고 나면 바람직한 국면에 처하리라. 76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32, 04	戌	46년생 제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58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하리라. 70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82년생 다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루어 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1, 77
巳	41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때밀러 날 것임에 틀림없다. 65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77년생 뒷날에야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1, 59	亥	47년생 할리키가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59년생 예의와 겸손이 절실할 요구되는 하루다. 71년생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정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83년생 땅이 꺼지게 한술 쉼 일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38,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예쁘게 잘 살게요”

배우준과 결혼 발표 후 팬사인회 나선 박수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원주 한류스타 ‘은사미’ 배우준(43)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연기자 박수진(30·사진)이 결혼 발표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현대백화점에서 자신이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패션브랜드 팬 사인회에 참석한 그녀는 결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이 오셔서 고맙고 며칠 전 좋은 소식에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쁘게 잘 살겠다”며 씩스러워했다.

지난 14일 결혼발표 후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수백명의 시민이 팬사인회 현장에서 모였다. 빈자리 없이 취재진과 참석 한 시민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녀는 행사장에 모인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녀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각종 매체에서 모인 취재진도 끊임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며 관심을 보였다.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그녀는 연기자로 전향한 뒤 꾸준히 활동해오다 2010년 케이블채널 올리브의 맛집 정보 프로그램인 ‘테이스티 로드’ MC로 발탁됐다. 이후 지금까지 진행을 맡으며 먹방연출로 명성을 얻었다. 자신의 소속사 1대 주주이자 선배인 배우준과의 결혼계획을 발표하며 순식간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연출뉴스